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8. 26.(수)	사진 · 영상	사진(O), 영상()
보도일자	2026년 8월 26일(수)부터		
담당자	김현미 의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회운영위원장, 제주도의회 방문...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뜻 모아”

- 행정수도 완성 위한 양 의회 공감대 확인...특별법 연내 제정에 한 목소리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안신일) 김현미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강해정, 김동호, 김명숙, 김창연, 윤성규 의원(방문단)은 26일 제주도의회를 방문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양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세종시의회 방문단은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양측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법안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현미 의회운영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행정수도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

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의회 방문단은 제주도의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문구가 적힌 피켓을 함께 들고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